

## 연구자의 역할과 담론적 사례연구: 행정학자들의 사례연구 논문 검토를 중심으로

윤건수\*

이 연구는 한국 행정학자들이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해 완성한 논문들에 대한 리뷰논문이다. 최근 5년간의 한국행정학보에 기고된 사례연구논문들을 검토한 결과 사례연구의 유형을 크게 이론중심 사례연구, 자료중심 사례연구, 연구자 중심 사례연구로 나눌 수 있었다. 3가지 유형의 사례연구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이론 중심 사례연구였다. 상당수의 연구가 가설검증 연구처럼 이론을 먼저 제시하고 자료는 이론을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자료를 기술하거나 요약하면서 귀납의 과정을 거치는 연구는 극히 드물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전통적인 분류 방식으로는 사례연구에 속하지 않는 형태의 연구들이 꽤 있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특정 맥락 속에 존재하는 구체적 이슈에 대한 자료와 이론이 연구자에 의해 결합되는 형태의 연구다. 이 연구는 이런 유형의 연구를 담론적 사례연구라고 이름을 붙였다. 담론적 사례연구는 연역이나 귀납보다는 귀추의 방법론을 사용하고, 법칙보다는 맥락화를 염두에 둔 연구자의 해석을 강조한다.

주제어: 사례 연구, 질적 연구, 담론 연구

### 1. 들어가는 글

연구방법론으로서 사례연구가 갖는 위치는 견고한 것 같지만 막상 사례연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일치하지 않는다. 방법론을 자료와 이론의 결합을 통해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해 보자. 우선 사례연구를 하면서 계량자료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르다.

\*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조직이론, 관료제, 질적 방법론 등이다(gsmagic@korea.ac.kr).

## 2 「정부학연구」 제25권 제3호(2019)

사례연구를 질적 연구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는 학자들은 사례는 말이나 글 등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계량자료를 분석하는 연구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본다(Creswell, 1998; 남궁근, 2003; 윤건수, 2005). 그러나 계량자료가 사례의 성격과 특징을 잘 보여줄 수도 있다면, 굳이 사례연구를 하면서 계량자료를 분석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보는 학자들도 많다(Platt, 1988; Yeager, 1990). 사례연구를 실증적인 것과 해석적인 것으로 분류하는 것을 보면(김승현, 2008), 사례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를 아우르는 방법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논란을 피해 사례연구를 방법론의 영역으로 묶어 정의를 내리려 하지 않고 일종의 관찰기법이나 연구전략으로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다(McNabb, 2002; Yin, 2003). 학문 분야별로 사례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굳이 하나의 방법으로 분리하지 말고 연구대상으로 보면 충분하다는 견해다(김경동·이은숙, 1988). 사례연구는 단지 사회 현상 가운데 하나의 사례 혹은 몇 개의 사례로 관심을 제한하는 연구일 뿐(Babbie, 2012),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게링(Gerring, 2004)은 특정 시점이나 기간 안에서 관찰되는 것들을 사례로 보고, 하나의 단위(unit) 속에서 그러한 사례들을 집약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사례연구라고 했다. 그리고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를 정의하는 특별한 방식을 사례연구방법이라고 간주했다. 관찰의 맥락이 연구자가 시간이나 공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방법론으로 간주할 것인가라는 질문과는 무관하게 사례연구라는 것이 '맥락을 분리하면 이해하기 힘든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Yeager, 1990; Yin, 2003; Creswell, 1998). 학자에 따라 과정과 상호작용에 초점을 둘 수도 있고(McNabb, 2002), 인과관계의 규명에 초점을 둘 수도 있지만(남궁근, 2003; 이영철, 2006), 맥락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정보들을 수집하면서 현재의 경험적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 사례연구의 요체다(Creswell, 1998).

사례연구란 이와 같이 특정 사건이나 활동과 그것이 처한 맥락을 동시에 이해하려는 연구다. 하나의 사례는 시간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며, 개인의 관점, 집단의 관점, 조직의 관점, 국가의 관점 등과 같이 분석단위의 차이 때문에 사례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기도 한다. 행위자들의 가치나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례를 바라보는 프레임도 다양해진다. 맥락에 대한 해석은 결국 사례의 성격을 규명하는 과정이다. 그러기 때문에 사례연구에서 해석 활동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사례연구가 구성적 관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연구자가 갖고 있는 프레임과 해석 활동을 기반으로 사례가 분석되기 때문이다(윤건수, 2005; 2008). 그러나 연구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실재가 있다고 주장하는 실재론자들 역시 다른 관점에서 연구자의 해석 활동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반증주

의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기존의 이론체계에 부합되지 않는 반박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례연구는 과학 활동의 핵심 방법론 중 하나라고 본다(최병선, 2006). 비판적 실재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실재를 이해한다는 것은 실재를 특정 방향으로 작동하게끔 만드는 인과기제를 밝혀내는 것인데, 연구자의 치밀한 해석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례 연구야말로 그것을 밝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다(이영철, 2006).

이상의 논의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연구방법으로서 사례연구의 지위가 견고하지 않다는 점이다. 질적 연구를 강조하지만 양적 연구를 무시하지 않고, 독립된 연구방법론의 흐름을 갖고 있지만 단지 하나의 연구전략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공존한다. 더구나 사례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해석 활동’의 스펙트럼이 한결같지 않다. 그렇다면 행정학을 전공한 학자들은 사례연구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연구는 일견 모순된 것들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사례연구가 과연 하나의 연구방법으로 학자들 사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용되는지를 살펴보는 리뷰 논문이다. 특히 사례연구의 과정에서 보여지는 ‘해석 활동’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검토의 대상이 된 논문은 최근 5년(2014년 3, 4호~2019년 1, 2호)간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295편 논문 가운데 사례연구의 속성을 가진다고 생각되었던 61편 논문이다. 이하 2절에서 논문들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3절에서는 그 기준을 갖고 비교검토 한 결과를 요약한다. 4절에서는 분석의 결과를 통해 발견된 것들을 ‘담론적 사례연구’라는 내용으로 확장하여 논의하고, 5절에서 글을 마무리 하기로 한다.

## II. 문헌 검토의 기준: 연구수행의 5가지 가정

문헌의 비교와 검토 기준으로 이 연구에서는 연구에 대한 5가지 가정을 사용한다.<sup>1)</sup>

- 
- 1) 베렐과 모건은 연구패러다임의 차이를 가져오는 이유가 연구의 기본 가정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존재론(실재론인가 유명론인가), 인식론(실증주의인가 반실증주의인가), 인간에 대한 가정(결정론인가 자유의지론인가), 방법론(법칙정립적인가 개별기술적인가) 등 4가지를 패러다임 분류의 기본 가정으로 제시하였다(Burrell & Morgan, 1979). 크레스웰과 클라크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존재론(실재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인식론(연구자가 연구대상 간의 거리가 존재하는가), 가치론(연구자의 연구목적은 무엇인가), 방법론(어떤 방법론을 활용하는가), 수사학(연구성과를 어떻게 전달하는가), 이렇게 5가지 항목에 대한 입장의 차이 때문에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차이가 생긴다고 봤다(Creswell & Clark, 2007). 이 연구는 이들의 분류에서 얻은 통찰력을 활용하되 사례연구가 가능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이론, 자료, 이론과 자료를 연결하는 지식, 연구대상으로서의 사례, 연구자의 동기, 이렇게 5

#### 4 「정부학연구」 제25권 제3호(2019)

5가지는 각각 자료수집 및 정리에 대한 태도(자료수집 기법), 인식의 틀인 이론을 바라 보는 관점(인식론), 이론과 자료를 결합하는 방식(방법론), 연구자와 연구대상 간의 관계(존재론), 연구의 목적과 동기(가치론)가 있다. 사례연구는 기본적으로 경험 연구에 속한다. 경험 연구는 이론과 현상을 결합하는 연구다. 연구자가 순수하게 이론만 다룬다면 그것은 비록 현상을 설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해도 경험연구라고 볼 수 없다. 반대로 순수하게 현상만 서술한다면 그 사람은 연구자라기보다는 저널리스트에 가깝다. 경험을 탐구하는 연구자라면 연구의 과정에서 이론과 현상을 결합시켜야 한다. 이론과 현상의 결합을 달리 말하면 이론과 자료의 결합이다. 그리고 결합의 과정은 추론의 과정이기도 하며 곧 방법론을 말한다. 아마도 5가지 가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면 방법론일 것이다. 여기에는 <그림 1>에 나와 있는 것처럼 3가지 방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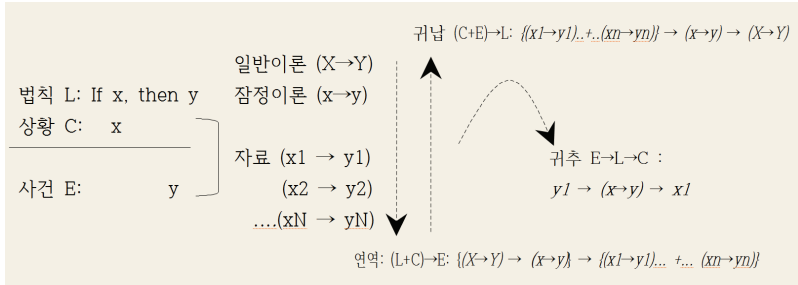
### 1. 이론과 자료를 결합하는 방식: 방법론

첫째 방식은 귀납(induction)의 방법이다. <그림 1>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황 C와 그로 인해 나타나는 사건 E에 대한 반복적인 관찰을 통해 법칙 L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만들어지는 법칙 L은 완벽하지 않다. 관찰되지 않은 다른 사실까지(십시어는 미래의 사실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칙의 보편성과 포괄성은 오직 확률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귀납을 통한 설명은 필연적으로 확률적 설명이다(Hempel, 1987: 134-138). 예를 들어 연구자가 자치단체를 연구 했더니 ‘공직수행의 재량성이 줄어들면서 전문성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자(그림에서는 ‘ $x_1 \rightarrow y_1$ ’으로 표시). 이것은 연구자가 만든 일종의 잠정이론이다. 연구자가 호기심을 느껴서 또 다른 자치단체를 연구했을 때에도 같은 결과를 얻었고(그림에서는 ‘ $x_2 \rightarrow y_2$ ’로 표시), 연구자가 조사했던 N번째 조직의 경우에도 그 결과가 같았다고 하자(그림에서는 ‘ $x_N \rightarrow y_N$ ’으로 표시). 연구자는 무수히 많은 관찰을 거치고 잠정이론을 수정해 나가면서 마침내 최종적인 잠정이론을 제시한다(그림에서는 ‘ $((x_1 \rightarrow y_1) + (x_2 \rightarrow y_2) + \dots + (x_N \rightarrow y_N)) \rightarrow (x \rightarrow y)$ ’로 표시). 이것이 귀납의 과정이다. 다만 이렇게 만들어진 잠정이론( $x \rightarrow y$ )이 일반(혹은 보편)이론( $X \rightarrow Y$ )의 지위를 갖는가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만 결정된다.

---

가지 항목을 검토의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그림 1〉 연구 과정의 세 가지 추론: 귀납, 연역, 귀추



둘째 방식은 연역(deduction)으로 법칙 L과 상황 C가 주어지면 사건E가 도출된다는 설명 방식이다. 설명되는 것 E 안에는 설명하는 것 L과 C가 당연히 포함하기 때문에, 또한 설명되는 것(Explanandum)은 설명하는 것(Explanans)으로부터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Hempel은 이런 방식의 추론을 법칙연역적(deductive-nomological) 설명이라고 불렀다(Hempel, 1987: 103-110). 예를 들어 “업무의 자율성이 줄어들면 업무능력이 줄어든다”는 일반이론이 있다고 해보자. 그리고 연구자가 이 이론을 토대로 ‘공직수행의 재량성이 줄어들면 전문성이 하락한다’는 잠정이론을 유도해 냈다고 하자. 이것은 논리적 규칙을 법칙적으로 따른 것이다. 즉, 이론이 제시하는 세계를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연구자는 일반이론(X→Y)이 있었기 때문에 잠정이론(x→y)을 만들 수 있었다. 잠정이론을 표현하는 진술은 일반이론을 표현하는 진술의 부분집합에 속하기 때문이다(그림에서는 ‘(x→y) ∈ (X→Y)’로 표시). 이렇게 만든 잠정이론은 자료를 통해 정당화의 과정을 거친다(그림에서는 ‘(X→Y) → (x→y) → {(x1→y1) + (x2→y2) +....(xN→yN)}’)로 표시). 귀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증의 방식을 선택하건 반증의 방식을 선택하건 ‘공직수행의 재량성이 줄어들면 전문성이 하락한다’는 진술에 대한 증거의 수준은 확률적으로만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구자가 잠정이론을 자료와 결합하는 방식이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x가 존재할 때 y가 나타난다’는 잠정진술과, ‘경험현상 x1이 존재한다’는 두 개의 조건이 결합되면, 두 개의 전제로부터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내는 삼단추론의 과정을 거쳐 ‘경험현상 y1이 나타난다’는 주장이 당연히 도출된다. ‘공직수행의 재량성이 줄어들면 전문성이 하락한다’는 잠정이론이 존재하고, 연구자가 현재 조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량성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면, 공무원의 전문성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연역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셋째는 귀추(abduction)의 방식이다. 귀추는 구체적 사실로부터 그 사실에 대한 가

## 6 「정부학연구」 제25권 제3호(2019)

장 그럴듯한 설명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일단 사건 E를 접한 후에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법칙들 가운데 하나의 법칙인 L을 선택하고, 나중에 상황 C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연구자가 사건 E를 관찰했다고 하자. 왜 그런 현상이 발생 했는 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연구자가 S→E, P→E, Q→E, C→E 등과 같이 사건 E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4개의 경쟁이론을 생각했다고 해보자. 만약 연구자가 C→E를 선택한다면 연구자는 E의 원인으로 C라는 상황을 선택한 것이며, 이때 연구자의 선택은 연구자가 만든 잠정이론이 된다. 연구자는 경험자료를 통해 C가 존재하는지 밝히면 된다. 연역이 설명적 모델에 이끌리며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추론이고, 귀납이 경험자료와 연관된 사례들을 기반으로 일반명제를 만들기 위한 추론이라면, 귀추는 연구자의 성찰과 적극적 해석에 바탕을 둔 설명을 강조한다(Mantere & Ketokivi, 2013). 연역이나 귀납은 각각 이론이나 자료만 있으면 설명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러나 귀추는 자료와 이론을 결합하는 연구자의 인지적 능력을 강조한다. 예컨대 연구자가 y1이라는 현상을 관찰했다고 하자. 연구자는 p→y, q→y, s→y, x→y 등의 잠정이론들 가운데 무엇이 y1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상황과 관련이 있는지 고민할 것이다. 그리고 성찰의 과정을 거쳐 x→y를 가장 그럴듯한 잠정이론으로 선택했다면, y1과 연관된 현상에서 x1이라는 상황이 경험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면 된다(그림에서는 'y1 → (x→y) → x1'로 표시).

예를 들어 지방행정을 전공하는 연구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공무원들이 과거에 비해 전문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관찰하고 그 원인을 궁금해한다고 하자. 현실적인 연구자라면 온전하게 자료에만 매달리지도 않고 이론에만 매달리지도 않는다. 경험자료를 추가하고 관련 문헌들을 찾아나가면서 이론과 현실의 접점을 찾으려 할 것이다. 연구자는 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 선출된 자치단체장의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문헌연구를 하면서 지나친 통제가 오히려 업무수행자의 역량을 떨어뜨린다는 이론을 발견할 수도 있다. 자료와 이론의 변주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자는 비로소 '공직수행의 재량성이 줄어들면 전문성이 하락한다'는 잠정이론을 만들 수 있다.<sup>2)</sup>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공직수행의 재량성이 줄어들었다는 경험적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귀추는 그 정당성을 획득할 것이다.

---

2) 모든 이론이나 법칙이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정하면, 귀추는 늘 정당화된다. 예컨대 의사는 먼저 환자의 증상을 보고 그것의 원인에 대한 이론들을 고민해 보다가, 최종적으로 증상의 원인에 대한 하나의 이론을 선택한다. 형사는 범죄현장에 떨어진 단편적인 증거를 보고, 그 증거를 여러 상황들과 연결시켜 보다가, 최종적으로 하나의 상황을 증거가 제시하는 핵심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의사와 형사 모두 연역이나 귀납이 아니라 귀추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 2. 자료수집과 정리: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방법론은 자료와 이론을 결합하는 논리와 그 과정을 뜻한다. 그렇다면 연구자가 자료에 대해 갖는 입장은 차이가 있을까? 자료는 엄격히 말하면 현상 그 자체가 아니라 현상을 대변하는 상징이나 지표다. 숫자는 현상을 성격이 유사한 몇 개의 구획으로 나누고 그것들을 비교하거나 순위를 매기는데 사용하는 지표다. 말이나 글 중심의 텍스트는 현상의 특징을 설명하고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다. 연구의 주된 자료가 숫자라면 서베이 결과나 실험자료 혹은 통계아카이브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법을 활용해야 한다. 반대로 자료가 말이나 글처럼 텍스트와 연관된 자료라면 인터뷰기록과 관찰일지 내러티브 등의 질적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 앞의 것이 양적 분석이고, 뒤의 것이 질적 분석이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활동이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구방법론으로 확대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은 엄밀하게 말하면 연구의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기법과 연관된 용어다 (윤건수, 2008).

이론과 자료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1차 자료를 가공하여 2차 자료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본래 갖고 있던 자료의 성격이 뒤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자료가 신문텍스트 등의 질적 자료라고 할지라도, 연구자가 분석을 위해 원자료를 코딩하고 숫자를 부여하면서 2차 자료로 만들었다면, 이것은 양적 연구에 속한다. 연구자의 질문이나 이론과 결합되는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기법이 '숫자'에 맞춰졌고 그렇게 만들어진 양적자료가 분석에 쓰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연구자가 정부통계자료 일부를 자신의 해석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의 예증으로 활용했다면, 이것은 양적 자료를 활용한 질적 분석에 가깝다. 통계자료 안에 있는 숫자들 간 관계가 분석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통계자료가 나타내는 의미가 마치 하나의 '텍스트' 자료처럼 활용되기 때문이다.

## 3. 이론적 입장: 법칙적 인식과 해석적 인식

이론이란 단순히 말하면 '사물에 대한 지식을 논리적인 연관에 의해 하나의 체계로 이루어 놓은 것'이다(두산백과, 2019). '이론'의 성격과 지위에 대해서는 이미 분석철학이나 과학사를 전공한 학자들 간에 이미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이론은 한 마디로 연구대상에 대해 연구자가 지니고 있는 인식체계(지식체계)를 표현한 것이다. 연구자의 이론은 부분적이며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 잠정이론은 늘 불안하기 때문에 후시 있을 수 있는 보편이론(혹은 일반이론)과의 관련성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밖에 없

다. 잠정이론과 보편이론의 관계에 대해 두 가지 입장이 있다.

하나는 이론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는 입장, 소위 실재론을 가정하는 연구자들의 입장인데, 이들은 잠정이론이 보편이론의 한 부분집합이라고 간주한다. 잠정이론은 보편이론의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이론인 것이다. 연구자가 선행이론들을 참고하여 하나의 잠정이론을 만들어 냈다고 해보자. 선행이론과 거기에서 제시한 개념들이 적어도 자신이 만드는 잠정이론을 설명할 수 있는 보편이론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믿지 않으면 잠정이론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은 잠정이론이 논리적 규칙과 환원 등을 통해 보편이론들로부터 타당하게 도출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 점에서 잠정이론과 보편이론의 관계는 법칙적이다.

이와는 달리 연구자가 경험 현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면을 포착하여 잠정이론을 만들었다고 해 보자. 연구자가 만든 잠정이론의 토대는 기존의 선행연구가 아니라 현상을 보여주는 자료다. 연구자는 자료를 추가하거나 이론을 보완하면서 자신이 만든 잠정이론의 한계에 대해, 그리고 그 이론의 확장가능성에 대해 분석을 더해갈 것이다. 잠정이론의 지위를 안정시키기 위해 연구자는 다양한 형태의 사고실험을 통해 그 이론이 다른 맥락 속에서도 얼마나 잘 작동되는지를 평가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잠정이론과 보편이론의 관계는 해석적이다.

일찍이 라이헨바흐(Reichenbach)는 과학활동에 있어서 정당화의 맥락과 발견의 맥락이 서로 구별되는 것이라고 봤다 (Schickore, 2018). 라이헨바흐가 구분했던 과학활동의 유형을 적용해 볼 때 법칙적 인식은 기존의 이론과 개념을 정당화하는 논리에 가깝고, 해석적 인식은 새로운 개념과 이론을 구축하고 발견하는 것과 연결된다. 실증주의자들처럼 법칙적 인식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일반이론과 부분이론을 연결할 수 있는 법칙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법칙을 통해 도출된 잠정이론의 검증을 통해 일반이론의 지위를 더 공고하게 하려고 한다. 이것이 정당화의 논리다. 그러나 해석적 인식에 토대를 두는 연구자들은 어느 상황에서나 참인 일반이론 존재할 수 없다고 가정한다. 설령 사회적 동기가 유지되는 거대이론이 존재한다고 해도 연구자의 이론은 진술은 늘 불안하다. 왜냐하면 일반이론과 부분이론을 연결하는 법칙이 연구의 맥락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연구자의 진술은 법칙이나 맥락에 대한 해석과 함께 잠정이론이 왜 타당한가를 보여주었을 때 비로소 그 지위가 획득된다. 그만큼 발견적 가치를 강조한다.

#### 4. 연구자와 연구대상의 관계

〈그림 2〉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그림으로 정리한 것이다.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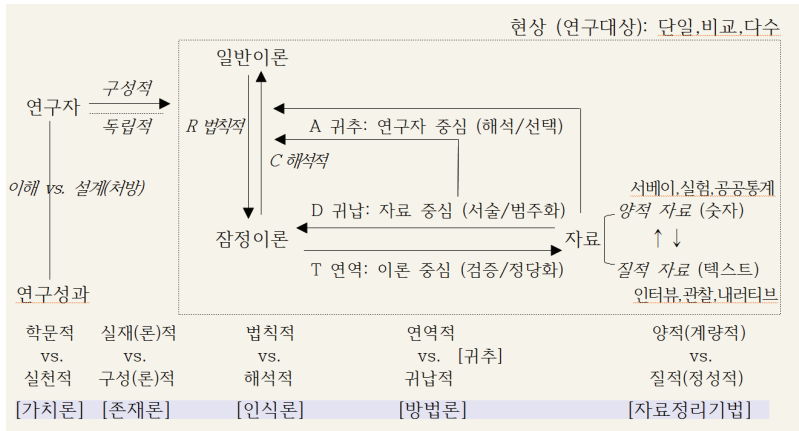


구대상을 사례라고 해보자. 연구대상은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다수일 수도 있다.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양적 사례연구와 질적 사례연구로 사례연구를 구분할 수 있다. 연구자가 만든 잠정이론이 일반이론과 어떤 관련을 맺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법칙적 사례연구와 해석적 사례연구로 구분이 가능하다. 연구자가 이론과 자료를 결합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귀납적, 연역적, 귀추적 사례연구로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그림 2〉는 여기에 덧붙여 두 개의 가정이 추가되어 있다. 하나는 연구자와 연구대상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 다시 말해 연구의 대상으로서 사례가 갖고 있는 존재론적 지위와 관련된 질문이다. 윤건수(2005; 2008)는 거리두기와 거리 좁히기의 관점으로 양자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소위 실재론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연구대상을 연구자와는 독립적인 존재로 본다(이영철, 2005; 최병선, 2006). 양자의 거리가 늘 존재한다는 것이다. 어떤 연구자가 그 사례를 연구하건 사례와 연관된 현상은 변하지 않고, 고유의 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하나의 입장은 연구대상인 사례가 연구자의 관점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와 연구대상 간의 상호의존성은 필수적이며, 양자의 관계 역시 고정적이지 않고 시공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사례를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사례를 둘러싼 맥락인데 연구자 스스로 이런 맥락을 형성하는 요인이 된다. 연구자는 연구대상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실제의 한 영역을 구성한다(윤건수, 2008).

〈그림 2〉 연구의 기본 가정



## 5. 연구자의 가치와 의도

마지막 가정은 연구수행의 가치와 관련된 질문이다. 연구 과정에서 보이는 가치 정향은 다른 말로 연구자의 목적과 의도를 뜻한다. 만약 연구자가 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다시 말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설계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면, 연구자의 가치정향은 실천적이다. 이와는 달리 연구자의 목적이 현상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특징을 자세하게 기술하거나, 그 안에 숨겨진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연구자의 가치 정향은 현상을 이해하는 쪽에 가깝다.

가치 정향은 4가지 가정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컨대 가설검증을 시도하는 학자들은 처방과 설계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실재론적 가정에 입각하여, 법칙연역적인 인식과 방법론의 토대 위에서, 주로 양적 자료를 분석하는 기법을 사용한다. 반대로 현상을 이해하고 비판하는데 목적을 두는 학자들은 주로 구성적이거나 상대적인 가정에 입각하여, 텍스트 등의 질적 자료를 활용하여, 귀납적이고 해석적인 방법론을 통해 새로운 진술을 만들어 내는 것을 선호한다. 그렇다면 과연 행정학자들은 사례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5가지 가정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 Ⅲ. 분석의 결과: 법칙적이고 연역적인 사례연구

### 1. 분석 방법

행정학자들의 사례연구에 대한 입장을 분석하기 위해 이 논문은 최근 5년의 행정학보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최근 5년간(2014년 3.4호~2019년 1.2호) 한국행정학회보에 수록된 논문은 모두 295편이다. 이 가운데 철학과 이념적 경향을 띤 규범적 논문과, 양적자료를 수리적 방법으로 정리한 계량적 논문을 제외한 논문은 모두 61편이다.<sup>3)</sup> <부록>은 61편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비교검토의 기준은 우선 위에서 설명한 5가지 가운데 비교적 그 내용을 적시하는데 어렵지 않은 가치론, 인식론, 방법론, 자료수집기법의 4가지였다.

---

3) 역사와 연관된 논문이 3편이 있었다. 이런 논문은 통상적인 기준에 의하면 사례연구라기보다는 역사연구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 논문은 3편의 연구가 사례연구와 동일한 형식을 갖추었기 때문에 (즉, 특정 시공간이라는 경계가 존재하고, 특정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이론과 자료의 결합이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음) 분석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만약 이 논문들을 제외한다면 총 58편이다.

가치론(연구의 목적)은 연구자가 의도한 논문의 목적인데 이해, 비판, 발견, 모형(개념) 적용, 검증, 모형제시, 개념 확장 등 다양한 집필동기를 가급적 가감 없이 표시했다. 인식론은 선행연구에서 잠정이론을 도출하는 과정에 비중을 두었으면 법칙적 인식, 잠정이론을 확장하여 새로운 이론과 모형을 만들고 제시하는데 비중을 두었으면 해석적 인식으로 분류하였다. 선행이론에서 잠정이론을 만들어어나가다 다시 새로운 이론과 모형을 제시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법칙적이고 해석적인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고 분류하였다. 방법론은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잠정이론을 경험자료를 통해 확인하거나 비판하려고 했으면 연역, 경험자료의 범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잠정이론을 만들어 냈으면 귀납, 자료와 이론의 피드백 과정이 비교적 분명히 나타났으면 귀주라고 분류했다. 자료수집 및 정리기법은 실제 이론과 결합되는 자료가 어떤 자료인가를 명시하였다. 다만 연구자가 이론을 설명하거나 자료를 기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기술적인 성격이 있는 연구라는 점을 첨가하였다. 연구자와 연구대상의 관계가 실재론적인가 아니면 구성적인가라는 존재론적 질문은 명확하지 않아 제외시켰다. 그 대신 연구대상의 분석단위가 한 개의 현상인지, 비교를 위한 것인지, 여러 개인지를 표시하였고, 시간이나 공간적 범위가 넓어서 그 단위를 특정화하기 힘든 경우에는 담론이라는 용어로 표기하였다.<sup>4)</sup>

## 2. 분석 결과

이상의 5가지 분석기준에 의한 비교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사례'의 의미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사례연구, 사례분석, 사례방법 등 그 무엇이 되었건 사례의 의미에 대해 연구자가 합의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었다. 사례연구지만 그것을 제목에 표시하는 연구는 61편 가운데 20편에 불과했다. 이와 달리 정책, 제도, 개혁이나 변화 등에 대한 연구는 사례연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사례연구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연구자들 스스로 사례연구에 대한 정의를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구분에서 나타나는 차이만큼 다르게 보고 있었

4) Cambridge 사전은 담론(discourse)을 특정 주제에 대한 말이나 글(a speech or piece of writing about a particular, usually serious, subject)로 정의하고 있다. 푸코(Foucault)는 특정 대상이나 개념에 대한 지식을 생성시킴으로써 현실에 관한 설명을 산출하는 언표들의 응집력 있고 자기지시적인 집합체(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라고 정의 하였다. 담론이라고 표시한 이유는 이런 유형의 연구들이 특정 이슈에 대한 그동안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명확하게 그 범위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현실 세계의 특정 시공간에서 그 이슈에 대한 논의들이 다루어졌으며, 연구자가 기존의 이론과 개념을 현실세계의 논의들과 연결하여 그 이슈에 대한 해석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다. 크게 3가지로 그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사례를 연구대상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례연구다. “공공기관융합의 효과성과 영향요인 연구: KEC 사례를 중심으로(윤영채·배응환, 2015)”, 또는 “방송분야 정책네트워크 특성 연구: 방송언론의 소유규제 완화 정책사례를 중심으로(김정훈, 2017)” 등의 연구는 제목이 사례연구로 되어 있지만 통계적 가설검증 논문이다. 연구자들은 단일, 비교, 다수 사례 등의 표현에서 보듯 사례를 다른 것과의 시공적 경계 구분을 염두에 둔 하나의 단위(unit)로만 본다. 둘째는 사례를 분석자료를 이루는 핵심 표본으로 바라보는 사례연구다. 근거이론 등과 같이 질적 연구로 분류되는 다수의 연구들은 이런 입장을 취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장관은 정치가인가 행정가인가: 장관 리더십에 대한 근거이론 적용(김경은, 2015)”에서는 7명의 장관, “고위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이해: 근거이론을 이용하여(김다니·임도빈, 2019)”에서는 10명의 고위공무원을 연구했는데, 이들 연구참여자들이 곧 사례이며 이들에 대한 면접자료가 연구의 핵심을 이룬다. 이런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라는 표현 대신 근거이론, 현상학, 해석학, 문화기술 등의 용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는 사례를 물리적이고 시간적인 맥락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실체(entity)로 바라보는 사례연구다. 이것은 사례연구에 대한 가장 전통적인 견해에 가깝다. <부록>에서 정리한 것처럼 그것은 위원회와 네트워크처럼 조직일 수도 있고, 정책이나 제도일 수도 있으며, 개혁과 변동의 과정이기도 하고, 갈등이나 재난이나 사고처럼 특정 상황일 수도 있다. 사례연구를 “맥락과 구분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연구(Yin, 2003)”라고 이해한다면, 이 정의에 가장 가까운 형태의 사례연구다.

2) 자료수집과 정리의 기반으로 양적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이 있었다. 즉, 많지는 않았지만 사례연구가 전적으로 질적 접근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었다. 첫째는 네트워크 연구나 미디어 텍스트 내용분석 등의 연구에서 보듯 질적 자료들을 계량화하여 양적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퍼지셋이나 Q분석 등의 자료 정리기법은 양적 분석에 포함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사례의 수가 많을 때 그것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검토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계량적 방법과 유사한 유형이라고 봐야 한다. 둘째는 일종의 혼합 방법론으로 질적 접근과 양적 접근을 동시에 사용한 연구다. 예컨대곽성희·박통희(2014)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재단법인화와 예술성”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면담자료를 해석하는 기법과 준실험설계 기법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양적자료와 질적 자료를 함께 사용하여 분석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혼합방법론 연구의 좋은 사례다. 마지막으로 순수하게 양적 자료만 활용했고, 그 자료를 분석하는 기법도 양적 연구에 속하는 사례연구가 있다. 윤영채·배응환(2015)의 “공공기관융합의 효과성과 영향요인 연구: KEC

사례를 중심으로”가 대표적이다. 이런 연구들은 대개 논문의 제목에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부제를 단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는 법칙적이고 연역적인 성격을 갖는다. 여기서의 사례는 연구대상이라기 보다는 분석대상 (자료수집의 대상)에 더 가깝다.

3) 가설을 검증하는 것처럼 법칙적 연구가 지배적이었다. 즉, 해석의 장점을 살리는 사례연구가 많지 않았다. 해석적(interpretive) 연구라고 할 때, 해석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는 현상학이나 해석학 또는 민속학 등 연구자의 철학적 전통에 따라 다르다(Lee, 1991). 예를 들어 현상학과 사회학을 접목시킨 슈츠(Schutz, 1967)는 해석을 한다는 것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부여하는 의미를 제 3자인 연구자가 파악해 내는 과정이라고 봤다. 한편 해석학에서는 부분에 대한 이해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소위 말하는 해석학적 순환의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봤다. 민속학이나 문화기술지에서는 관찰자로서의 연구자가 아니라 실제 현장을 체험하는 참여자의 관점을 이해의 출발점으로 설정한다. 결국 어느 입장이건 해석적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해석의 대상이 되는 ‘자료’에 연구자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자료가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되는지에 대한 해석과 함께 자료가 개념화 되어가는 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61개의 논문 가운데 27개는 기존의 이론체계와 모형을 제시한 후 그것을 검증하거나 적용하는 논문이었다. 그리고 18개는 법칙적 연구를 주로 하되 해석적 연구를 가미한 것이었다. 해석의 비중이 더 큰 연구는 16개 정도였다.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이 논문에 나와 있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연구를 이끌어 가는 것은 자료가 아니라 선행이론과 개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이론과 자료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하는 방법론은 연역이었다. 귀납이 갖고 있는 본래의 장점, 즉 경험자료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요소들을 범주화하면서 개념을 만들어내는 사례연구는 많지 않았다. 굳이 근거이론이 아니라 해도 질적연구에 속하는 많은 연구들은 귀납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귀납의 장점을 살린 연구들은 극히 드물었다. 법칙적 인식이 지배적이라면 방법론 역시 연역을 주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사례연구에서 이론이 자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카보와 비슬리는 사례연구의 유형을 개별기술적 사례연구, 이론을 전제로 하는 예측적 사례연구, 일탈사례 연구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론생성(가설 형성) 사례연구, 파일럿스터디와 유사한 이론보완 사례연구, 이론을 검증하거나 반증하는 사례연구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Karrbo & Beasley, 1999). 이 유형들은 개별기술적 사례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론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분류된 유형들이다. 그만큼 이론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러한 경향은 〈부록〉의 분석결과에 나와있는 것처럼 이 논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 14 「정부학연구」 제25권 제3호(2019)

61편의 논문 가운데 연역적이라고 할만한 논문이 무려 45편이나 되었다. 여기에는 크게 4가지 유형이 있었다. 첫째는 모형이나 개념을 제시하고 그 틀대로 사례를 설명하는 연구다.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한 감정노동자 보호 정책의 변동: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사례를 중심으로(원숙연·이혜경, 2018)”의 논문과 같이 개념을 확인하거나 모형을 적용하는 연구는 모두 여기에 속한다. 둘째는 개념이나 이론이 제시한 항목들에 대한 특성을 확인하면서 비교하는 연구인데 퍼지셋방법론 등을 사용한 유형 발견이나, “생태하천복원사업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조의 동태적 변화 비교: 양재천과 흥제천 사례를 대상으로(이현정, 2018)” 등과 같은 비교사례연구를 예로 들 수 있다. 셋째는 개념과 이론이 제시하는 가정과 의미를 비판하기 위한 연구들이다. “분리행위(decoupling)의 비판적 고찰: 원전비리 사건을 중심으로(김윤호, 2014)” 등과 같이 사례를 활용해 기존 이론과 개념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비판하는 논문인데, 이것은 반증을 위한 사례연구의 유형이다. 넷째는 가설과 모형을 만든 후 그것이 적절한지 판단하거나 적용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례를 활용하는 연구다. “국무총리 임명 유형 연구: 정치적 환경과 대통령 선호의 균형역학(권일웅·박찬영, 2016)”은 총리 임명 모형을 제시한 후 그것을 검증하는 도구로 25명의 국무총리 임명 사례를 활용했다.

5) 귀추의 방법은 연역이나 귀납과 함께 사용되고 있었다. 비판적 실재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나 근거이론의 방법론을 논의하는 학자들이 많이 거론하는 논리가 바로 귀추다. 그러나 막상 논문들을 읽어 나갈 때 해당 논문이 정확히 귀추적 방법을 활용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론을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을 연역적이라고 하고, 반대로 자료를 범주화하면서 개념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귀납적이라고 약간 그 의미를 느슨하게 이해한 것처럼, 귀추적이라면 자료를 보고 이론을 제시한 후 다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약간 완화시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귀추에 대한 유일한 판단기준은 연구자가 경험자료와 이론 사이를 왔다갔다 하면서 고민한 흔적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다. 연구자가 자료→이론→자료→토론(이론과 자료의 결합)의 과정, 즉, 이론과 자료 간의 피드백 과정을 거쳤다면 귀추의 과정을 거쳤다고 봐야 한다. 이론과 자료 가운데 무엇을 더 강조하는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하나는 “참여 및 숙의제도의 대표성: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최태현, 2019)”에서 보는 것처럼 이론의 비중이 큰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대안적 사회조정양식으로서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흥도 유람선 좌초사고 민간자율구조 사례를 중심으로(정수용·이명석, 2015)”에서 보는 것처럼 자료의 비중이 더 큰 경우다. 두 논문 모두 분석이 끝난 후의 토론 과정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그리고 이론이

나 자료 어느 한 쪽에 치우쳐 있지 않다. 토론을 통해 이론과 사례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다만 전자는 이론의 비중이 커서 연역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 있고, 후자는 경험사례에 대한 분석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귀납적 특징이 강하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행정학 분야의 사례연구는 법칙적이며 연역적 인식과 방법이 대강을 이루고 있었다. 사례연구지만 연구수행 과정의 논리는 계량적 연구와 유사했다(김승현, 2008). 개념과 이론을 제시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자료를 모으며 이론적이거나 처방적인 함의를 제시하는 가설검증 패러다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윤건수, 2005). 즉, 이론과 개념이 자료의 선택과 해석을 좌우하고 있다. 연구자들이 자료보다 개념과 이론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은 연구의 제목에 그대로 투영이 되어있었다. 예컨대 “제도변화와 행위: 제도 혁신가 모형을 활용한 금융실명제 도입 사례 분석(김지연, 2018)”의 목적은 행위를 통해 제도가 변화된다는 이론과, 그 이론의 핵심 개념인 제도 혁신가 모형을, 금융실명제 도입이라는 사례로 보겠다는 것이다. 분석을 주도하는 것은 경험사례가 아니라 이론이다. “전자정부 책임성 구현을 위한 대안적 접근: 맥락적 정의와 공유된 인지모형(최태현·김덕수·하정연, 2015) 역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이라는 경험적 사례보다는 책임성과 공유된 인지모형이라는 추상화된 개념들이 분석을 주도하고 있다.

## IV. 사례연구의 확장: 담론적 사례연구

### 1. 사례연구: 이론 중심인가, 자료 중심인가, 연구자 중심인가?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논문이 주목했던 것은 사례를 현상을 반영하는 하나의 담론으로 보고 진행되는 사례연구들이었다. 연구대상의 단위(unit)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은 사례연구의 전통적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연구자 스스로도 사례연구라고 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문헌연구나 해석적 연구 혹은 질적 연구에 포함시켜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특정 시공간 안에 존재하는 이슈가 있고, 그것과 관련된 경험자료와 이론이 있으며, 이론과 자료를 결합하는 방법적 입장이 비교적 분명하다면 사례연구에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예컨대 “공직행동으로서의 복지부동: 담론의 재생, 확장과 역설(정병걸, 2018)”이라는 논문이 있다. 만약 연구자가 논문의 제목에 ‘한국에서 논의된 복지부동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부제를 붙였다고 해보

자. 그러한 부제를 붙인다고 논문 전체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부제가 존재한다면 분명히 사례연구로 분류될 것이다. “한국 행정의 오래된 미래: 관료제와 정치(윤건수, 2018)”라는 논문도 그 성격은 동일하다. 그 논문의 핵심자료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절의 공무원을 비판하는 내러티브다. 굳이 부제를 붙이지 않더라도 자료의 성격만 보면 사례연구로서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저발전과 유교적 전통: 유교국가 조선(朝鮮)의 사례를 통한 ‘유교복지국가론’의 재검토(김순양, 2017)”, “조세를 둘러싼 담론정치: ‘증세없는 복지’와 ‘선별증세’를 중심으로(강국진, 2017)” 등의 논문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상황을 끌어들이는 공통점이 있다. 상황의 범위가 하나는 조선시대이고 하나는 최근의 한국 상황이라는 점, 한 연구에서는 사례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다른 연구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다르지만, 특정한 시공적 경계 안에 존재하는 특정 이슈를 다루고 있다는 점은 같다.

분석대상이 된 논문 가운데 전혀 다른 이론적 관점에서 세월호 사건을 다룬 논문이 두 편이 있었다. 하나는 “관료의 (무)책임성의 재해석: 세월호 사고를 중심으로(김병섭·김정인, 2014)”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적 재난관리의 책임성과 확보방안(유현중, 2014)”이라는 논문이다. 앞의 논문에는 ‘사고’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사례의 성격을 제시하고 뒤의 논문에서는 그런 표현이 전혀 없지만, 두 논문 모두 공무원의 책임이라는 주제를 분석하는 것이 분석의 핵심이고 세월호 사고를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다루고 있었다. 이런 경우에 사건이나 사례라는 표현이 있어야 사례연구가 되고 그러한 표현이 없으면 사례연구가 아닌가? 그리고 사례를 하나의 단위(unit)로 설정하지 않고 단지 에피소드로만 다루었다고 해서 사례연구가 아니라고 할 것인가? 이러한 난점을 피하기 위해 이 논문이 제시한 사례연구의 유형이 담론적 사례연구다. 책임성이라는 이슈가 세월호 사고라는 시공적 맥락 안에서 분석되었다는 것은 책임성과 연관된 이론적 담론과 현실의 담론이 연구자의 해석을 통해 결합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롬젝과 두브닉(Romzek & Dubnick, 1987)이 챌린저호 폭발 후에 Public Administration Review에 기고했던 “Accountability in the Public Sector: Lessons from the Challenger Tragedy”라는 논문은 책임성과 연관된 이론적 담론과 현실의 담론을 연결한 담론적 사례연구의 좋은 예가 된다. “조직화된 위선의 개념화: WTO의 합의제에 의한 협상을 토대로(김명환, 2015)”라는 논문도 조직화된 위선과 연관된 담론을 확대하는 것이지, WTO 합의제 관련 협상 과정의 내용과 절차를 기술하는 것은 아니다.

담론이라는 것은 개념의 세계(혹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개념과 이론들)와 현실의 세계(혹은 경험을 보여주는 자료들)를 연결하는 연구자의 노력에 의해 드러난다.



〈표 1〉 연구의 5가지 가정과 사례연구의 초점

	이론 중심	연구자 중심		자료 중심
<b>가치론:</b> 연구수행의 목적과 의도	이론의 정당화: 이론의 증명 (검증과 반증)	이론의 확산: 이론의 보완과 적용 (보완과 활용)	현상의 이론화: 현상의 특징과 과정을 이론화	현상의 발견: 현상의 특징과 과정을 발견
<b>존재론:</b> 연구대상(현상)과 연구자의 관계	실재론: 현상은 연구자와 독립적으로 존재 구성론: 현상은 연구자가 만들어 내는 것	사회적 실재: 인간의 의식과 행동을 구속하는 사회적 현상 존재	사회적 구성: 현상은 사회적 동의를 지지를 통해 구성되는 것	구성론: 현상은 연구자의 의식 안에 드러남 실재론: 현상은 연구자와 독립적으로 존재
<b>인식론:</b> 잠정이론과 보편이론의 관계	법칙적: 잠정이론은 보편이론의 재현이자 부분집합	해석적: 잠정이론은 보편이론(선행이론) 을 분석하여 도출된 것	해석적: 잠정이론의 적용 맥락을 확대한 것이 보편이론	법칙적: 자료를 요약하며 만들어진 잠정이론이 보편이론
<b>방법론:</b> 잠정이론과 자료의 관계	연역: 잠정이론의 세계를 경험자료를 통해 동일하게 재현	귀추: 이론→자료→이론 →자료의 과정을 거치며 정당화 강화	귀추: 자료→이론→자료 →이론의 과정을 거치며 이론화 강화	귀납: 경험자료의 범주화 과정을 통해 잠정이론을 도출
<b>자료의 수집과 정리 (글쓰기)</b>	이론적 개념의 조작화와 척도화	개념에 대한 분석과 의미의 명확화	자료가 제시하는 의미의 발견과 해석	경험자료의 기술과 요약 (범주화)

〈표 1〉에서 보듯 사례연구의 유형을 이론 중심, 자료 중심, 연구자 중심 사례연구로 유형화할 때, 담론적 사례연구는 연구자 중심의 사례연구를 대변한다. 예를 들어 연구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론을 검증하거나 반증하는 것이라면 이론 중심의 사례연구, 경험자료의 특징을 기술하고 요약해서 특징을 발견하는 것이라면 자료 중심의 사례연구라고 부를 수 있다.

연구자가 이론에 더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자료에 더 관심이 있는가의 차이가 있지만, 담론적 사례연구는 이론과 경험자료를 동시에 고려한다는 점이 다른 유형의 사례연구와 다르다. 기존 이론을 사례를 통해 검증하려는 이론 중심의 사례연구나 자료로

부터 이론적 진술을 만들어 내려는 귀납적 사례연구 모두, 실재론의 입장에 가깝다 (Eisenhardt, 1989). 그러나 <표 1>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담론적 사례연구는 이론인가 아니면 자료인가라는 양 극단의 중간지점에서 연구자의 자율성과 해석적 노력을 강조하는 사례연구다. 이론을 정당화 하는 연구나 자료를 개념화하는 연구 그 어느 것이 되었건 연구과정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 이론과 자료 사이의 피드백이기 때문에 연구방법은 귀추에 가깝다.

## 2. 연구자의 역할과 담론적 사례연구

담론적 사례연구는 기존의 개념들과 이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자료가 보여주는 특징들에 맹목적으로 매달리지도 않는다. 연구자의 관심은 이론과 경험자료를 결합하면서 기존의 담론을 확장하거나 비판하는데 있다. 연역이나 귀납보다는 귀추적인 방법과 잘 조응된다. 담론적 사례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연구자의 역할과 해석의 과정이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영혼 없는 공무원”을 하나의 담론으로 보고 담론적 사례연구의 가치에 대해 논의해 보자. 다음과 같이 A, B, C, 세명의 연구자가 “공무원의 영혼”에 대한 사례연구를 한다고 가정해 보자.

연구자 A는 공무원의 영혼이 없다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 흥미를 가졌다. A는 공무원들을 만나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공무원의 영혼과 관련된 대화 내용을 모으며 자료를 분류하기 시작했다. 점차 인터뷰의 숫자를 늘리고 자료들을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A는 ‘새로운 정권의 등장’이라는 범주와, “일에 투여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성과가 낮다’는 범주를 발견했다. 인터뷰를 해도 더이상 새로운 범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A는 그 범주를 각각 ‘정권교체’와 ‘생산성’이라고 개념화하고, ‘정권이 교체되면 유난히 공무원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현상’을 영혼이 없는 공무원과 관련된 이론으로 제시하였다.

연구자 B는 막스베버의 책을 보다 공무원은 영혼이 없어야 한다는 말에 흥미를 느꼈다. 그래서 문헌연구를 시작하며 공무원의 영혼과 관련된 이론과 개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B는 영혼이 없는 공무원은 편견이나 정념에서 벗어난 공무원, 전문직업주의에 충실한 공무원, 가치판단이 아니라 사실판단에 입각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등의 이론과 관련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관련된 이론들을 정리하여 마침내 B는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전문성을 발휘하는 공무원”이라는 명제를 영혼 없는 공무원과 연관된 이론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단체장이 바뀐 자치단체들을 사례로 선정하여 자신의 잠정이론을 증명하였다.

연구자 C는 연구자 A와 B의 약간은 상반된 연구결과에 흥미를 느꼈다. 그래서 아는 공무원들을 찾아 인터뷰를 했더니 정권이 바뀌면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C는 사기라는 개념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정권의 교체와 사기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선행연구와 이론들을 찾아보았다. 마침내 C는 정권이 바뀔 때 공무원들은 자신의 지위 상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다는 이론을 발견했다. 그래서 C는 “정권의 교체가 공무원들의 지위불안을 야기하고, 이것이 사기를 떨어뜨려 결국 생산성을 하락시킨다”는 것을 영혼 없는 공무원과 연관된 이론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단체장이 교체된 자치단체 하나를 사례로 선정하여 자신의 잠정이론에서 제시한 인과관계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자 A는 자료 중심의 사례연구를 대변한다. A는 경험자료로부터 귀납의 과정을 거쳐 이론적 명제를 만들어냈다. 엄격하지는 않더라도 유사한 관찰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이것은 귀납에 가깝다. 예컨대 한 사람에 대한 인터뷰 자료에서 정권교체와 연관된 담론이 반복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중요한 범주로 제시했다면, 그것은 귀납의 방법에 토대를 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사례연구가 지니는 가장 큰 장점은 아직 아무도 개념화하지 않은 내용을 자료에서 만들어 냈다는 발견적 가치다.

연구자 B는 이론 중심의 사례연구를 대변한다. B는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나는 언명들을 끌어모아 하나의 잠정진술을 만들었다. 이것은 일종의 가설이다. 잠정진술을 만들었던 토대는 선행이론들에 대한 문헌연구 및 그 이론들 간의 논리적 규칙이다. 비록 엄격하지는 않더라도 선행연구들에 대한 논리적 추론이 끝나야 비로소 사례연구가 시작된다. 이런 유형의 사례연구가 갖는 장점은 연구자의 이론을 보강하거나 반박하는 정당성의 근거로 사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례의 범위를 간단한 에피소드로부터 견고한 시공적 경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자 C는 연구자 중심의 사례연구를 대변한다. 경험자료에서 이론적 진술을 만들어내는 귀납적 사례연구와, 기존 이론을 사례를 통해 검증하려는 가설연역적 연구 모

두, 과학적 실재론의 입장에 서 있다고 봐야 한다(Eisenhardt, 1989). 그러나 C의 입장은 다르다. 사례연구를 연구자의 인지적 노력과 귀추의 과정을 통해 해석담론(reflexive narratives)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본다(Mantere & Ketokivi, 2013). 예컨대 정책사례를 분석한다고 해 보자. 정책은 순수하게 이론의 영역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경험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것만도 아니다. 또한 정책이란 이론가들의 인과적 주장에 이끌려지는 것만이 아니고 실무진들의 실천적이고 처방적인 관점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만도 아니다. 정책의 과정은 말과 글로 이루어진 담론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며, 담론이 상황을 어떻게 정의하고 판단하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새로운 담론이 주류담론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저항하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다 (Stone, 1988; 2002; Fischer & Forester, 1993; Fischer, 2003; 우아영, 2009; 윤건수, 2014; 2018). 그러므로 정책을 분석한다는 것은 하나의 텍스트처럼 정책을 해석하는 것이며, 텍스트 안에 포함된 명제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정책 이외의 사례연구도 동일하다. 특정 이슈에 대한 말과 글의 덩어리 가운데 이론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을 결합하면서 그 이슈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 사례연구다.

담론적 사례연구에 가장 가까운 것은 연구자 C다. A는 자칫 사례의 내용을 기술하기만 하고 분석의 수준까지 확장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자료의 개념화에 대한 판단기준들에 대해 소홀하기 쉽다. B는 반대로 기존의 개념과 이론에 집착하기 때문에 문헌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연구를 끝내는 경향이 있다. 경험자료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과 맥락적 속성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귀추를 강조하는 연구자 C는 연구의 중심이 이론도 아니고, 자료도 아니며, 이론과 자료를 끊임없이 결합하고 비교해보는 연구자라고 본다. 연구자의 판단과 인지능력이 분석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Hatch & Yanow, 2003). 연구는 이론과 자료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연구자이기 때문이다. <부록>의 분석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귀추의 방법론을 사용한 논문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법칙보다는 해석적 인식에 더 친숙하며, 연구대상도 사건이나 조직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경계가 존재하는 단위(unit)가 아니라 담론인 경우가 더 많았다.

### 3. 담론적 사례연구의 가치

사례연구의 유형을 3가지로 나누는 이유는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기존의 분류체계가 갖고 있는 모호함 때문이다. 예컨대 현상학, 해석학, 자서전, 문화기술지, 근거이론 등의 방법론은 사례연구와 함께 질적 방법론으로 분류가 된다. 그리고 이런 방법론은

주로 이론의 비중보다 자료의 비중이 더 크고 귀납적 방법과 친화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의 분석결과는 학자들이 반드시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말해준다. 예컨대 어떤 학자가 현상학적 사례연구를 하면서 10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했다고 해 보자. 현상학은 연구참여자의 내면을 언급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론보다 질적인 연구라고 알려져 있다. 연구자는 A처럼 귀납의 방법으로 10명 연구참여자의 심층면담기록을 분류하고 범주화하면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반대로 연구자는 B처럼 자신이 선호하는 개념과 이론들을 정리한 후 그 틀에 맞춰 면담기록을 정리해 나갈 수도 있다. 이것은 귀납이 아니고 연역의 방법이며, 발견의 논리가 아니라 정당화의 논리에 가깝다. 한편 연구자는 C처럼 이론과 자료 사이를 왔다갔다 하면서 귀추와 해석의 과정을 거쳐 양자를 결합하는 담론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분석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각자가 자신의 영역에서 만들어내는 지식(local knowledge)을 확인하면서 시작된다(Yanow, 2000). 연구자는 학계에서 통용되는 이론적 지식과 현장에서 움직이는 경험적 지식을 확인하고 연결하는 존재다. 연결의 결과가 바로 담론일 것이다.

담론적 사례연구가 다른 연구들과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는 좋은 예를 근거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근거이론은 다수의 사례를 끌어모아 경험의 과정에 대한 이론적 진술을 만들어내는 방법론이다(Glaser & Strauss, 1967). 근거이론에서 말하는 '사례'는 가설검증 방법에서 사용하는 '표본'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근거이론에 기반을 둔 사례연구는 사례들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귀납적이다(Mantere & Ketokivi, 2013:71~73). 연구자가 편견을 버리고 자료 분석에 충실하면 자료는 실제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본다(Glaser, 1978; 1998). 이것은 연구자 A와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근거이론은 스트라우스와 코빈이 개발한 패러다임 모형을 적용해 이루어진다. 그들은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은 원인, 조건, 상황, 결과, 효과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은 보편적인 과정에 가깝기 때문에 일종의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고 봤다(Strauss & Corbin, 1998; Corbin & Strauss, 2008). 실제로 근거이론 방법을 사용하는 많은 연구들, 특히 한국의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자료를 이러한 패러다임에 맞게 재정렬하는 것으로 분석의 뼈대를 삼는다. 이것은 연구자 B의 입장이다. 그러나 기존의 입장을 비판하고 새로운 근거이론 근거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론과 현실이 서로 연결된 중간적인 입장, 더 나아가 맥락을 무시하거나 맥락에 고착된 것이 아니라 양자 사이를 매개하는 연구자의 구성적 입장을 강조한다(Charmaz, 2006; 권향원, 2016; 2017; 이영철, 2009). 이것은 연구자 C의 입장이다. 교육(행정)학자 변기용은 이론의 세계와 경

힘의 세계라는 이분법적 배타성을 극복하는 대안적 지점의 연구방법을 강조했는데(변기용, 2018), 그것은 C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그는 이론 구성이 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학자와 현장 전문가 간의 공동생산이라는 관점에서 행위연구와 근거이론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 연구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담론적 사례연구가 담론의 발견에 그치지 않고 담론의 생산과 교류로 이어지고, 이론의 확장뿐 아니라 실천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본다. 이와 같이 근거이론이라고 해도 연구의 토대가 경험자료, 이론, 연구자 가운데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에 따라 방법론의 색깔이 달라진다.

담론적 사례연구의 성패는 연구자의 열정과 진정성에 의해 좌우된다. 이론 중심의 법칙적이고 연역적인 사례연구는 선행연구로 이루어진 연구공동체의 확인과 동의를 거친다는 장점이 있다. 자료 중심의 귀납적이고 기술적인 사례연구는 발견적 가치를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 다각검증(triangulation) 등과 같은 연구의 엄격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거치면서 연구의 질이 개선된다. 담론적 사례연구는 만약 그것이 제대로 수행된다면 위 두 가지 사례연구의 장점을 모두 수용할 수 있다. 연구자가 특정 주제(혹은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보자. 이론은 그 주제를 지나치게 일반화 하는 쪽으로 연구자로 끌고 간다. 반대로 자료는 그 주제를 지나치게 맥락화하는 쪽으로 연구자를 몰고 간다. 연구자가 중심이 되는 담론적 사례연구는 이론과 자료의 균형 속에서 주제를 다룰 수 있다. 그러나 경험자료에 충실하겠다는 것을 핑계로 이론이나 개념을 무시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론이 중요하다는 것을 핑계로 삼으며 경험자료를 분석하는데 소홀할 수도 있다. 이론과 자료의 균형 속에서 특정 주제에 대한 담론을 완성시켜 나가는 연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V. 맺음말

분석의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행정학자들이 전통적인 논쟁의 틀바구니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례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만 연구자들은 여전히 자료보다는 이론과 개념의 비중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었다. 질적 연구가 지나치게 양적 연구처럼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들은(윤견수, 2005; 2008; 김승현, 2008) 사례연구의 경우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다. 사례연구는 방법론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질적인 동시에 양적일 수 있다(Stake, 2000: 435, 449). 이것은 이 논문의 분석결과에서도 나

타나고 있다. 과연 어떻게 사례연구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 이 논문이 주목했던 것은 연구의 대상이 구체적인 단위(unit)가 아니라 담론이었던 사례연구였다. 담론적 사례연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시공간 내에 존재하는 어떤 이슈가 다루어져야 하고, 그 이슈와 연관된 경험자료의 분석이 있어야 하며, 그 자료를 해석하는 이론과 개념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연구자가 개념과 이론만 나열한다면 그것은 문헌연구에 가깝다. 대부분의 리뷰논문들이 이런 연구에 속한다. 특정 상황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는 경우라 할 지라도 그 자료가 개념과 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만 쓰인다면 그것은 이론 중심적 사례연구가 되기 쉽다. 만약 연구자가 경험자료에만 치중한다면 그것은 자료의 기술과 요약이지 연구라고 부를 수 없다. 이론을 제시하더라도 연구자가 자료에서 발견된 이론만 제시하고 선행연구나 이론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자료 중심적 사례연구가 될 것이다. 특정 시공적 맥락에서 이론의 영역과 경험의 영역이 구체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담론적 사례연구로 발전할 수 있다. 예컨대 '신자유주의 도입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정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해보자. 여기에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xx광역단체의 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xx정책의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등과 같이 무수한 종류의 부제를 붙일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 연구대상의 범위를 특정 시공적 맥락으로 묶어두는 작업이며 사례연구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하지만 그러한 부제를 붙이지 않더라도 연구자가 특정 시기의 경험(예컨대 IMF경제위기 시기 등) 자료를 자신의 주장과 연결시켰다면 그것은 일종의 담론적 사례연구라고 볼 수 있다.

이론 중심적 사례연구는 법칙적이고 연역적인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 자료 중심적 사례연구는 자료를 요약하고 정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귀납적이며 기술적인 행위가 토대가 된다. 둘 다 어느 정도의 반복적인 노력과 훈련에 따라 방법을 습득을 습득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가 중심이 되는 담론적 사례연구는 이론과 자료를 어떻게 결합시켰는가에 따라 연구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연구자의 해석 역량이 중요하다. 연구자가 경험자료를 하나의 에피소드 정도로만 가볍게 취급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이론과 개념을 느슨하게 취급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그만큼 연구성과물에 대한 질적 차이가 크다. 이론 중심의 사례연구와 자료 중심의 사례연구가 담론적 사례연구와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담론적 사례연구가 어떤 조건에서 어떤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방법론적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것인지는 앞으로의 연구주제임을 일러둔다.

##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강국진. 2017. “조세를 둘러싼 담론정치: ‘증세없는 복지’와 ‘선별증세’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정보》, 51(3): 1-29.
- 곽성희·박통희. 2014.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재단법인화와 예술성.” 《한국행정정보》, 50(2): 97-130.
- 권일웅·박찬영. 2016. “국무총리 임명 유형 연구: 정치적 환경과 대통령 선호의 균형 역학.” 《한국행정정보》, 50(3): 101-130.
- 권항원. 2016. “근거이론의 수행방법에 대한 이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2): 181-216.
- \_\_\_\_\_. 2017. “행정이론의 한국화를 위한 연구방법 및 이론화 전략: 보편성과 특수성의 이분법적 흑백논리의 극복.” 《한국행정정보》, 51(2): 1-31.
- 김경동·이은숙. 1986. 《사회조사연구법-사회연구의 논리와 기법》. 서울: 박영사.
- 김정은. 2015. “한국의 장관은 정치가인가 행정가인가: 장관 리더십에 대한 근거이론 적용.” 《한국행정정보》, 49(3): 391-425.
- 김다니·임도빈. 2019. “고위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이해: 근거이론을 이용하여.” 《한국행정정보》, 53(1): 95-123.
- 김명환. 2015. “조직화된 위선의 개념화: WTO의 합의제에 의한 협상을 토대로.” 《한국행정정보》, 49(1): 89-115.
- 김병섭·김정인. 2014. “관료 (무)책임성의 재해석: 세월호 사고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정보》, 48(3): 99-120.
- 김승현. 2008. “행정학분야의 실증적 사례연구에 대한 분석과 평가.” 《정부학연구》, 14(4): 293-320.
- 김윤희. 2014. “분리행위(decoupling)의 비판적 고찰: 원전비리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정보》, 50(1): 235-263.
- 김정훈. 2017. “방송분야 정책네트워크 특성 연구: 방송언론의 소유규제 완화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정보》, 51(1): 65-89.
- 김지연. 2018. “제도변화와 행위: 제도 혁신가 모형을 활용한 금융실명제 도입 사례 분석.” 《한국행정정보》, 52(2): 199-235.
- 김순양. 2017.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저발전과 유교적 전통: 유교국가 조선(朝鮮)의 사례를 통한 ‘유교복지국가론’의 재검토.” 《한국행정정보》, 51(4): 57-90.
- 남궁근. 2003. 《행정조사방법론》. 서울: 박영사.



- 변기용. 2018. “한국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연구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이분법적 배타성 극복을 통한 대안적 지점의 모색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 연구》, 36(4): 1-40.
- 우아영. 2009. “사회정책연구에 있어 담론연구의 위상과 의미.” 《한국사회복지학》, 61(2): 247-276.
- 원숙연·이혜경. 2018. “응호연합모형을 적용한 감정노동자 보호 정책의 변동: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2(3): 151-184.
- 유현중. 2014. “국가적 재난관리의 책임성과 확보방안.” 《한국행정학보》, 49(4): 419-450.
- 윤건수. 2005. “한국 행정학의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반성과 제안.” 《한국행정학보》, 39(2): 1-22.
- \_\_\_\_\_. 2008. “사례연구: 분석의 세계에서 집필의 세계로.” 《한국정책학회보》, 17(4): 63-87.
- \_\_\_\_\_. 2014. “비합리적 행동의 합리적 기원 - Deborah H. Stone의 정책역설과 딜레마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3(4): 503-525.
- \_\_\_\_\_. 2018. “한국 행정의 오래된 미래: 관료제와 정치.” 《한국행정학보》, 52(2): 3-35.
- 윤영채·배응환. 2015. “공공기관융합의 효과성과 영향요인 연구: KEC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9(2): 307-346.
- 이영철. 2006. “사회과학에서 사례연구의 이론적 지위: 비판적 실재론을 바탕으로.” 《한국행정학보》, 40(1): 71-90.
- \_\_\_\_\_. 2009. “보다 나은 사례연구: 논리와 예시.” 《정부학연구》, 15(1): 189-214.
- 이현정. 2018. “생태하천복원사업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조의 동태적 변화 비교: 양재천과 흥제천 사례를 대상으로.” 《한국행정학보》, 52(4): 385-412.
- 정병길. 2018. “공직행동으로서의 복지부동: 담론의 재생, 확장과 역설.” 《한국행정학보》, 52(4): 441-465.
- 정수용·이명석. 2015. “대안적 사회조정양식으로서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홍도 유람선 좌초사고 민간자율구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9(3): 25-49.
- 최병선. 2006. “정책사례 연구 다시 보기: 사례연구에 대한 오해와 편견.” 《한국정책학보》, 15(1): 171-198.
- 최태현. 2019. “참여 및 숙의제도의 대표성: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2(4): 501-529.
- 최태현·김덕수·하정연. 2015. “전자정부 책임성 구현을 위한 대안적 접근: 맥락적

정의와 공유된 인지모형.” 《한국행정학보》, 49(4): 181-206.

《두산백과》. 2019. “이론”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16062](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16062). 검색일 2019년 12월 23일.

## 2. 외국문헌

Babbie, Earl R. (2012).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13th ed.).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Burrell, Gibson, & Gareth Morgan. 1979. *Sociological Paradigms and Organizational Analysis*. New Hampshire: Heinemann.

Charmaz, Kathy. 2006.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A Practical Guide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CA: Sage Publications.

Corbin, Juliet, & Anselm Strauss. 200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3rd ed.).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Creswell, John W.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Creswell, John W. & Vicki L. Plano Clark. 2007. *Designing and Conducting Mixed Methods Research*.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Eisenhardt, Kathleen M. 1989. “Building theories from case study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4(4): 532~550.

Fischer, Frank. 2003. *Reframing Public Policy: Discursive Politics and Deliberative Practic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Fischer, Frank, & John Forester. (eds). 1993. *The Argumentative Turn in Policy Analysis and Planning*. Duke University Press.

Gerring, John. 2004. “What Is a Case Study and What Is It Good Fo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8(2): 341-54.

Glaser, Barney G. 1978. *Theoretical Sensitivity: Advances in the Methodology of Grounded Theory*. Mill Valley, CA: Sociology Press.

\_\_\_\_\_. 1998. *Doing Grounded Theory: Issues and Discussions*. Mill Valley, CA: Sociology Press.

Glaser, Barney G., & Anselm L. Strauss.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2006. reprint) New Brunswick: Aldine transaction.
- Hatch, Mary Jo, & Dvora Yanow. 2003. "Organization theory as an interpretive science." in *The Oxford Handbook of Organizational Theory* (C. Knudsen and H. Tsoukas, Eds),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pp.63-87.
- Hempel, Carl G. 1987. *광광역역, 《자연과학철학》*. 서울: 박영사 (Philosophy of Natural Scienc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6)
- Karbo Juliet, & Ryan K. Beasley. 1999. "A Practical Guide to the Comparative Case Study Method in Political Psychology." *Political Psychology*, 20(2): 369~390.
- Lee, Allen S. 1991. "Integrating Positivist and Interpretive Approaches to Organizational Research." *Organization Science*, 2(4): 342~365.
- Mantere, S., & Ketokivi, M. 2013. "Reasoning in organization scie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8(1): 70~89.
- McNabb, David E. 2002. *Research Methods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Nonprofit Management: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Armonk, N.Y.: M.E. Sharpe.
- Platt, Janifer. 1988. "What can case studies do?" *Studies in Qualitative Methodology*, 1: 1~23.
- Romzek, B.S., & Dubnick, M.J. 1987. "Accountability in the public sector: Lessons from the Challenger traged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7(3): 227~238.
- Schickore, Jutta. 2018. "Scientific Discovery," in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Edward N. Zalta. (ed.), (URL = <https://plato.stanford.edu/archives/sum2018/entries/scientific-discovery/>)
- Schutz, Alfred. 1967. *The phenomenology of the social world*. Trans. by George Walsh, & Frederick Lehnert.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Stake, Robert E. 2000. Case Studies. In Denzin, Norman K., & Yvonna S.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pp. 435~454),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 Stone, Deborah A. 1988. *Policy Paradox and Political Reasoning*. Harper Collins Publishers.

- \_\_\_\_\_. 2002. Policy paradox: The art of political decision making. (revised ed). New York: Norton & Company.
- Strauss, Anselm, & Juliet Corbin.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 Yanow Dvora. 2000. Conducting interpretive policy analysis.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 Yeager, Samuel J. 1990. "Classic Methods in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In Jack Rabin, et al. (eds). Handbook of Public Administration. New York Marcel Dekker, Inc.
- Yin, Robert K. 2003.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3rd ed.).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 〈참고자료〉 부록에 소개된 61개의 행정학회보 게재논문

### 〈부록〉 최근 5년간 행정학회에 소개된 사례연구 형식을 띤 논문들의 기본 가정들

논문	사례의 성격	연구의 가치	분석 대상	인식론	방법론	자료 수집
2019년 3,4호 (7/18개)						
정부간 관계론적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의 관계: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을 사례로/ 박순중·신현두	정책 프로그램	개념적용 처방	비교	법칙적 (정부간 관계)	연역적	미디어 문헌
동물보호 정책변동 과정의 시민참여 정책 환류 기제 연구: 자원효과와 해석효과를 중심으로/ 주지에·박형준	정책과정	개념확인 분석	단일	법칙적 (환류기제)	연역적	질적 자료 변수화
지방정부의 제도변화와 행위자: 지속가능 발전과 저탄소녹색성장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임현정·권기태	정책	개념확인 분석	다수	법칙적 (제도변화)	연역적	양적 자료, 법령
고위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이해: 근거이론을 이용하여/ 김다니·임도빈	담론	이해와 발견	다수 10명	해석/법칙적 (패러다임 모형)	귀납적 귀추적 근거이론	면담
법정형회의 유형에 관한 연구: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적용하여/ 김정숙	담론	유형별 특성 이해	다수 42개	법칙적 (유형분류)	연역적 퍼지셋	질적 자료 변수화
시민주도적인 협력적 거버넌스의 운영에 관한 연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사례를 중심으로/ 정용찬·하윤상	네트워크	개념확인 이해	단일	법칙적 (오스트롬 분석들)	연역적	관찰 면담
참여 및 숙의제도의 대표성: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최태현	위원회	개념발전 발견 이해	단일	해석적 (대안모형 제시)	연역적 귀추적	문헌, 보고서
2018년 1,2,3,4호 (11/60개)						
계획, 기획, 그리고 행정조직: 한국 고도성장기 행정에 대한 비판적 근거이론 해석/ 차세영	경제개발 계획	이해와 발견	다수 11명	해석/법칙적 (패러다임 모형)	귀납적 귀추적 근거이론	면담 자서전 회고록
생태하천복원사업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조의 동태적 변화 비교:양재천과 홍제천 사례를 대상으로/ 이현정	네트워크 거버넌스	항목별 특성 비교	비교	법칙적 (네트워크거버넌스)	연역적	백서 보고서 규약
공공사업의 로컬거버넌스 특성 연구: 서산 가로림만조력발전소사례 / 배봉준	갈등 시기별 결정과정	항목별 특성 이해	단일	법칙적 (만든 모형 적용)	연역적	면담, 문헌
2018년 중국 국무원 조직개편의 분석과 함의/ 김윤권·류성·이수봉	조직개편 과정	항목별 특성 이해	단일	법칙적 (유형적용)	연역적 사례기술	문헌 등

30 「정부학연구」 제25권 제3호(2019)

논문	사례의 성격	연구의 가치	분석 대상	인식론	방법론	자료 수집
주요국의 규제사후영향평가제도 비교연구: 영국, 미국,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민호	제도	유형별 특성 비교	비교	법치적용 (항목별 비교)	연역적 사례기술	보고서 문헌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한 감정노동자 보호 정책의 변동: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원숙연·이혜경	정책변동	모형 적용	단일	법치적 (ACF모형)	연역적	문서 법령 통계등
일본 원자력 규제체계의 재편 과정 분석: 합리적 선택 신제주의에 의한 접근/ 안선희	제도변화	가설 검증	단일 (시계열적 비교)	법치/해석적 (만든 모형 적용과 해석)	연역적	문헌 등
제도변화와 행위: 제도 혁신가 모형을 활용한 금융실명제 도입 사례 분석/ 김지연	제도도입	모형 적용	단일	법치적 (제도혁신가 모형 적용)	연역적 사례기술	문헌 등
공직행동으로서의 복지부동: 담론의 재 생, 확장과 역설/ 정병걸	담론	이해 비판	담론	해석적	연역적 귀추적 담론기술	문헌 등
한국 행정의 오래된 미래: 관료제와 정치/ 윤건수	담론	발견 이해	담론	해석적 (행정과정)	귀납적 귀추적 내러티브	미디어 텍스트
빅데이터 정책 유형: 한 행정학자의 '간 증(testimony)'으로서의 자문화기술지/ 김동환	담론	비판 이해	담론	해석적 (생애사)	귀추적 귀납적 문화기술	경험 메모등
2017년 1,2,3,4호 (11/61개)						
민주화와 법집행 개혁의 정치: 민주주의 전환기(1988-2002) 한국의 경찰개혁/ 최경준	제도개혁	모형 적용	단일	법치적 (모형제시 후 적용)	연역적 사례기술	문헌 등
국가 관료제의 정책집행과 관료적 거버 넌스: 청주·청원 통합사례를 중심으로/ 박진우	시군통합	개념적용 이해	단일	법치/해석적 (만든 모형 적용과 해석)	연역적 귀추적	면담 보고서 문헌
일본 중앙인사기구의 정부조직개편: 일본 내각인사국(内閣人事局)을 중심으로/ 김정인	조직개편	개념적용 검증	단일	법치적 (Peters모형 제시와 검증)	연역적	각종 질적 자료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저발전과 유교적 전통: 유교국가 조선(朝鮮)의 사례를 통 한 "유교복지국가론"의 재검토/ 김순양	국가	이해 비판	담론	법치적 (유교국가)	연역적 귀추적 담론기술	역사 텍스트
공공정책에서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 분석/ 최영준·전미선	제도개혁	이해 처방	단일	법치적 (속의모형제 시후 적용)	연역적	각종 질적 자료
공공갈등에서 시민참여의 변화: 수도권 매립지 사례에 대한 근거이론의 적용/ 신상준·이숙중	갈등상황	이해와 발견	단일	법치/해석적 (패러다임 모형)	연역적 귀추적 근거이론	관찰 면담

논문	사례의 성격	연구의 가치	분석 대상	인식론	방법론	자료 수집
조세를 둘러싼 담론정치: '증세없는 복지'와 '선별증세'를 중심으로/ 강국진	담론	개념발전 이해	담론	해석적 (증세와 복지)	귀추적 귀납적 담론기술	미디어 문헌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문화정책 특성에 관한 연구: 문화의 민주화를 위한 정책인가?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정책인가?/ 한승준	정책	모형 적용과 이해	단일	법칙적 (두모형 비교 검증)	연역적 사례기술	각종 질적 자료
정부조직개편과정에 따른 동태적 조직변동의 탐색적 연구: 행정자치부 하부조직의 기능 및 구조변동 과정을 중심으로/ 임주영 · 박형준	조직개편	모형적용 이해	단일	법칙적 (조직생태학 모형 적용)	연역적 사례연구	정부 조직 자료
정책메커니즘 분석을 위한 AMIF 적용: 서울학생인권정책을 중심으로/ 양승일	정책	모형적용 이해	단일	법칙적 (ACF등을 결합한 모형)	연역적	문헌 등
방송분야 정책네트워크 특성 연구: 방송언론의 소유규제 완화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김정훈	제도	유형별 특징 발견	단일	법칙적 (네트워크 유형)	연역적	텍스트자료 계량화
2016년 1,2,3,4호 (8/55개)						
일제하 한국인 관료에 대한 차별적 인사 관리에 관한 연구: 한일 판임관 관료의 임용을 중심으로/ 최승은 · 안홍식	관료임용	이해 발견	담론	해석적	귀납적 귀추적 담론기술	1746명 사료의 계량화
개발연대 국가관료제의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 관료적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윤건수 · 박진우	정책집행	발견 이해	담론	해석/법칙적 (관료적 거버넌스)	귀납적 귀추적 담론기술	각종 질적 자료
한국행정의 역량: 경로의존에 의한 행정개혁의 형식화를 중심으로/ 엄석진	행정개혁	모형적용 이해	담론	법칙/해석적 (모형제시 후 적용)	연역적 귀추적 담론기술	각종 질적 자료
'문화정치'기 조선총독부 관료제 연구: 행정의 '능률 증진'을 중심으로/ 한승연	관료인사	개념확인 이해	담론	해석적	귀납적 귀추적 담론기술	사료
국무총리 임명 유형 연구: 정치적 환경과 대통령 선호의 균형역학/ 권일웅 · 박찬영	총리임명	모형검증 이해	다수 25명	법칙/해석적 (총리임명 모형 제시후 검증)	연역적 가설검증	자료 양화
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R&D)의 책임성과 딜레마/ 황광선	담론	모형제시 설계 처방	다수 27명	법칙/해석적 (성과역설)	연역적 귀납적 귀추적	면담

32 「정부학연구」 제25권 제3호(2019)

논문	사례의 성격	연구의 가치	분석 대상	인식론	방법론	자료 수집
“분리행위”(decoupling)의 비판적 고찰: 원전비리 사건을 중심으로/ 김윤호	비리	개념비판 발견	단일	해석/법칙적 (디커플링)	연역적 귀추적	보고서 문헌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재단법인화와 예술성/곽성희·박통희	조직변화	개념적용 이해 검증	단일 담론	법칙/해석적 (예술성)	연역적 준실험 설계	10명 면접+기존자료계량화
2015년 1,2,3,4호 (17/63개)						
국가적 재난관리의 책임성과 확보방안/유현중	재난 (세월호)	개념적용 이해 모델제시	담론	법칙/해석적 (책임성 이론)	연역적 가설검증	미디어 보고서
강요된 의제설정과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 의제설정 통합모형과 그 적용/김성수·이영철	의제설정	모형제시 이해	단일 담론	법칙/해석적 (의제설정 모형 확대)	연역적 귀추적	문헌
전자정부 책임성 구현을 위한 대안적 접근: 맥락적 정의와 공유된 인지모형/최태현·김덕수·하정연	NEIS 제도도입	개념비판 발견적	단일 담론	법칙적 (책임성이론)	연역적 귀추적 사례기술	문헌
규제개혁텍스트의 해체로 본 규제관점의 전환/최성욱	담론	개념적용 이해	담론	법칙적 (테리다의 해체이론)	연역적 귀추적 사례기술	미디어 (25년치) 문헌
한국 공직문화의 원형: 자리문화/윤건수	담론	개념확장 발견	담론	해석적	귀추적 담론기술	미디어 문헌
한국의 장관은 정치가인가 행정가인가: 장관 리더십에 대한 근거이론 적용/김경은	장관	개념확인 발견	다수 7명	법칙/해석적 (패러다임 모형)	연역적 귀추적	면접
민주화 이후 제도적 대통령의 재구조화에 관한 연구/신현기	청와대 비서실	개념확인 특성발견	단일담론	법칙적 (제도화속성으로 비교)	연역적 귀추적	문헌, 자료의 양화
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이 경험하는 행정비효율성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의 적용/허준영·권민영·조원혁	세종시 이전	개념확장 발견	다수 45명	법칙/해석적 (패러다임 모형)	귀납적 귀추적	문헌 면담
의사결정의 네트워크모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계획을 중심으로/배응환	의사결정 과정	개념확인 발견	단일	법칙/해석적 (네트워크와 정책변화)	연역적 귀추적	보고서 문헌
공유자산의 자치적 관리 모델에 대한 비판적 검토: 부산 가덕도 대항마을의 송어들이 사례를 중심으로/김민주	자치관리 담론	개념비판 이해 발견	단일 담론	법칙/해석적 (오스트롬 모형 비판 및 대안 모색)	연역적 귀추적 문화기술	관찰 면접



논문	사례의 성격	연구의 가치	분석 대상	인식론	방법론	자료 수집
대안적 사회조정양식으로서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홍도 유람선 좌초사고 민간자율구조 사례를 중심으로/ 정수용·이명석	사고수습 담론	개념확장 이해 처방	단일	해석/법칙적 (네트워크 거버넌스)	귀추적 연역적	문헌 면접
정책변동유형흐름모형의 검증 분석: 4대 강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양승일	정책프로 그램	모형검증 수정	사례	법칙/해석적 (정책변동흐름모형 검증)	연역적	미디어 문헌 등
새마을운동에서의 질적 평가에 관한 연구: 새마을운동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이광석	담론	비판 이해	담론	법칙/해석적 (평가모형 적용)	연역적 귀추적 담론기술	문헌 등
공공기관융합의 효과성과 영향요인 연구: KEC 사례를 중심으로/ 윤영채·배응환	MB정부 공공기관 융합	모형제시 검증	다수 (253명)	법칙적(효과 성평가모형 제시후 검증)	연역적 가설검증	설문
종교와 국가의 위험한 밀착: 우리나라 종교자원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정수	정책	이해 비판	담론 다수	해석적	귀추적 귀납적 담론기술	문헌 설문
다문화시대의 이민정책: 영주권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 김희강·류지혜	영주권 제도	이해 처방	단일	법칙/해석적 (규범적)	연역적 사례기술	문헌 등
조직화된 위선의 개념화: WTO의 합의 제에 의한 협상을 토대로/ 김영환	WTO 협상과정	이해 개념적용	담론	법칙적 (모형과 개념 적용)	연역적 귀추적 사례기술	문헌 등
2014년 3,4호 (7/38개)						
2013년 중국 大部制 행정개혁의 분석과 합의/ 백계화·김윤권	행정개혁	이해 특징기술	단일	법칙적 (분류모형 적용)	연역적 사례기술	문헌등
갑오개혁 전후 의정부와 6조 당상관 인사이동 비교 연구/ 한승연	인사이동	이해 발견기술	비교	해석적	귀납적 귀추적	사료의 도표화
공직 생활의 소외 유형: 지방자치단체 중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승주	담론	발견 이해	다수 16명	해석적 (유형)발견적	연역적 귀납적 귀추적	Q진술
전주·완주와 청주·청원의 행정구역 통합 결정과정의 비교 분석: 민·관 정책중개자를 중심으로/ 이단비·구인교	시군 통합과정	모형과 개념적용 이해	비교	법칙적 (개념 적용)	연역적 사례기술	보고서 미디어 문헌
지방정부 간 지역갈등 분석 틀 설계 및 이의 적용/ 정홍상·주재복·하혜수	지역갈등 담론	모형제시 모형적용	다수 (7개)	법칙적 (모형 적용)	연역적 사례기술	7개에피 스토드사례
행정과 생활세계의 충돌과 조화에 관한 연구: 의식의 흐름 방법을 적용한 밀양 송전탑 사태의 분석/ 이광석	송전탑 갈등	개념확인 이해	담론 단일	법칙/해석적 (개념 확인)	연역적 귀추적	보고서 면담 미디어
관료 (무)책임성의 재해석: 세월호 사고를 중심으로/ 김병섭·김정민	담론 세월호 사건	모형제시 모형적용	담론	법칙적 (개념과 모델 확인)	연역적 사례기술	보고서 문헌

## The Role of the Researcher and the Discursive Case Study: Based on the Review of Case Studies of Public Administration Scholars

Gyunsoo Y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case study papers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scholars. Reviewing the papers contributed to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over the past five years, the types of case studies could be classified into theory-oriented, data-centered, and researcher-driven. Among the three types, the most frequently used classification was the theory-oriented case studies. Many studies emphasized theories first and data were used as only small examples to validate or invalidate those theories, such as the analytic procedure of hypothesis testing. Very few studies have conducted the inductive process of describing and categorizing data. Noteworthy is that there have been many forms of research that are not traditional case studies. It is a form of study in which data and theories on specific issues in a particular context are combined by researchers. The study named this type of research a discursive case study. The discursive case study uses logic of abduction rather than deductive or inductive logic. It also emphasizes the interpretive role of researchers who bridge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worlds.

※ Keywords: case study, qualitative study, discursive study